

민주화의 불길이 치솟았던 그곳에서



변아영
부산 예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뼈아픈 역사가 숨쉬는 곳,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이 들썩이는 곳, 눈물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는 곳, 바로 '광주'로 향하는 청소년 민주주의 평화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학교 시절, 도덕선생님을 통해 5·18 민중항쟁에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난이 항쟁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 우리 나라에서도 저런 비극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뿐...

그리고 나서 얼마 전 평소에 잘 알던 선생님께서부터 이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5·18민중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불의에 맞선 정당한 저항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말씀이셨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활동이나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 자신이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인권, 청소년 문화, 넓게는 역사, 자유,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등 더 알고 싶고, 좀 더 체험하며 배우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인권, 역사, 자유, 정의에 관심

그 때 마침 찾아온 이 캠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광주에 도착하여 먼저 들린 곳은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던 분들이 청소차에 실려와 묻히신 망월동 묘지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직접 5·18을 겪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분께서는 같이 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는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남은 자신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는 내용의 말을 하셨다.

망월동 묘지를 지나 5·18묘지의 사진 전시실에서는 참혹하게 당한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져 있었는데 나는 사진을 둘러보던 중 이러한 글을 보았다.

"고등학생들은 먼저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우리가 사살되거나 다행히 살아남아도 잡혀죽겠지만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산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항쟁의 마지막을 자폭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장내는 숙연해지고, 수류탄을 거머쥔 고등학생들은 울었다." 이 글은 학생, 시민들과 함께 저항하던 중 시민의 대표 한 사람이 한 말이다.

이 글을 읽으며 내가 그 속의 고등학생이 된 듯 마음이 찡하면서, 경건한 마음이 들어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돼

사진 전시실을 나와 향한 곳은 5·18추모탑이었다. 뜨겁게 작열했던 광주의 항쟁처럼 우리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숭고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묵념을 했다.

그리고 옆 유영봉안소에는 많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 학생 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영정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진실로 5·18항쟁은 학살이었으며 비극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였던가. 그러나 군사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역사이며,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와 후세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청앞 전야제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에서 푸른 하늘로 날릴 종이비행기를 접었다. 나는 종이비행기 안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소원에서부터, 가족의 건강, 청소년 인권존중,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 더 크게 세계 민주주의, 세계평화 등 크고 작은 소원들과 5·18민중항쟁 당시 이 땅에 민주화가 바로 서

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저항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담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전야제에서 옮겨진 줄로 힘을 모아 줄다리를 하기도 하며,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대구지하철 참사 관계자 분들의 말씀', '통일이준마', '일본에서 오신 분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군에게 준비해 준 주먹밥처럼, 우리도 주먹밥을 먹게 되었다. 밋밋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주먹밥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던지 잊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였다. 시간이 없어 마지막 행사까지 보지 못하고 숙소로 가야 했지만,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행사 하나 하나를 가슴에 담으며 돌아갔다.

당시 시민군들이 먹었던 주먹밥도 먹고

숙소에서는 지친 몸을 씻은 후, 각 지역에서 만난 언니, 동생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었다. 이번 캠프가 더 뜻깊었던 것 중 하나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5·18민중항쟁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의 캠프도 점점 마지막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도착한 곳은 5·18 자유공원이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 그저 아이들이 뛰어 놀면 좋을 듯한 그곳엔 뜻밖에도 많은 시민군들이 투옥 당해 고문을 받았던 영창과 법정들이 원형으로 복원되어있는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념관을 먼저 둘러본 후라 시간이 없어 다 둘러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나마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곳에 갇혔던 사람들은 심한 고통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거나 풀려난 후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먼저 다녀온 기념관에서는 80년 5월 18일자 당시의 신문기사나 여러 자료들이 있었고, 현재까지의 일들이 담긴 영상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전시실 안쪽에는 피문은 태극기가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 태극기는 시위 중 돌아가신 분의 시체와 함께 덮여져 망월동에 옮겨진 값진 태극기였다. 그것을 본 순간, 나의 가슴에도 뜨거운 피가 솟구쳤으며, 심한



1박 2일의 청소년 역사캠프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다시 걸린 저 태극기의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이 일을 항상 기억에 새기며, 5·18 민중항쟁은 후세에 남길 정신적 자산이며, 세계의 소중한 역사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기념문화관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수고하신 자원봉사단 선생님들의 말씀을 끝으로 다함께 노래를 열창하며 모든 이들의 박수 속에서 캠프의 막을 내렸다.

미래를 위해 진실을 꼭 기억해야

이번 뜻 있는 캠프를 통하여 그 붉었던 오월의 역사 현장을 둘러봄으로서, 새롭게 역사에 눈을 뜬 것 같다. 그 때 이룬 민주화이식으로 세계적 역사 속에 자리잡은 이 항쟁의 진상규명을 밝히고 미래를 위해 진실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1박2일의 이 캠프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이 경험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아가 더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주화를 향한 불길이 치솟았던 광주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자리잡아 길이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젠 자유, 평화, 정의가 바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5.18 민주광장에 서서...



김다에
서울 동덕여자중학교 1학년

언젠가 부모님들의 대화 내용 속에서 생소한 단어가 들려와 여쭙 본 기억이 있다.

“데모가 뭐야?”
“최루탄? 그건 뭘데?”

분위기로 보아 무슨 전쟁 용어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쭙 보았다. 난 그런 아이였다.

2003년 5월 17일, 난 솔직히 수학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약간은 들뜬 기분으로 광주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몇 시간 후부터 난 지난 역사의 아픔을 실감하게 되었다. 1980년 5월 난 이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난 23년 전은 현재나 다른 없는 시간일 것이다. 난 역사책을 통해서 삼국시대를 알고 조선시대를 알았고 경주 불국사, 경복궁, 비원 등 문화 유적지와 박물관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배우고 익혔다.

가까운 역사에는 관심 안가져

하지만 정작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가까운 역사적인 사실에는 관심조차 가져 본적이 없었다. 단지 80년대 대학시절을 보내신 아빠와 엄마가 지난 대학시절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 데모가 뭐야?, 최루탄이 뭐야? 하며 대화에 끼어 들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난 이번 캠프를 통해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

으며 그 흐름 속에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선 5·18 민주 광장.

월드컵의 환호성이 울리던 시청 앞 광장을 연상시켜 난 처음 잠시 흥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축제의 장소로 알았던 광장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사가 진행될수록 난 지난 20여 년 전의 아픔과 고통을 실감하게 되었다.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 그런 자기 나라의 시민을 죽이고 갖은 잔악한 만행을 저지른 현장과 증거들. 죽은 바퀴벌레만 봐도 소리를 치던 내가 그 잔인한 장면들을 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기억해야만 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

잔악한 만행의 장면 외면할 수 없었어

공수부대의 손에 수없이 맞아 아픈 소리도 못 한 채 죽어 갔을 말 못하는 농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발가벗겨져 계엄군의 손에 농락 당했을 나와 같은 어린 소녀들,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총에 맞아 소리 없이 죽어 갔을 많은 무고한 시민들, 정의와 민주, 자유를 외치며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죽어 갔을 많은 학생들, 그 많은 죽음들 앞에서 나는 자유와 민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기억나는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중하게 후보를 결정하고 투표하시는 걸 본 나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한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역사 캠프를 통해 일부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국민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행복마저 권력 앞에 짓밟혔다는 사실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부모세대에 일어났던 현실이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놀라웠다.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느끼며 누리기만한 내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며 빼앗긴 권리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난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도 끔찍하고 슬픈 사실이었다.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니... 갑자기 난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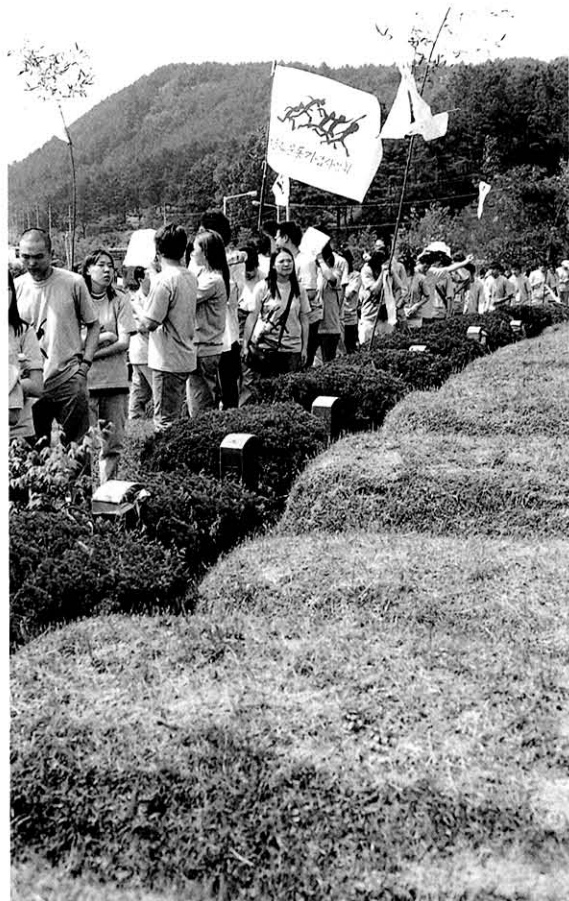
5·18, 끝나지 않은 현실 속의 역사

캠핑에 다녀와서, 그곳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관심조차 없었을 5·18에 관한 뉴스나 TV 프로그램에 나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졌고 광주 민주화운동 때 아들을 잃은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에서 난 다시 한번 아픔을 느꼈다.

그분들의 아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죽은 것이 확실한데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아들의 죽음이 단순 실종으로 처리된 것이 가슴 아파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하셨다. 아들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해 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시는 노부부의 한 매친 사연과 민주화 광장 앞에서 그런 죽음을 가슴에 품고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 부모세대에서 끝난 지난 아픈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실 속의 역사임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 뿐 아니라 그 희생으로 가슴 아픈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들의 가족들도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께서 물어 보셨다. 민주화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 질문에 난 광주에서 듣고 보았던 많은 희생자들의 고통과 망월동 묘지의 수많은 비석들과 비문들이 떠오르며 왠지 경건해지고 숙연해졌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

많은 역사의 진실을 보고 느끼고 돌아온 날 밤에 엄



망월동 구묘지를 답사하고 있는 청소년 평화 캠프 참가단

마가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희생과 노력 뒤에 오는 아름다움

“괜히 광주 보내서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걸 많이 보게 한 건 아닐까요?”

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혼자 생각했다.

‘엄마, 전 이번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뜨이는 느낌이었고 몰랐던 우리의 아픈 과거와 역사적 사실을 알았고 아름다움은 희생과 노력 뒤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겐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망월동 묘지에 묻혀 있는 많은 희생자 분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